

# SNS 활용 요인이 학습자의 태도와 성과에 미치는 영향 연구: 대학 수업을 중심으로

전병호  
서울여자대학교 기초교육원

## A Study on the Effect of Affecting Factors of SNS on Learner's Attitude and Performance: Focused on University Class

Byoung-Ho Jun  
Institute of General Education, Seoul Women's University

요 약 SNS는 의사소통의 도구 뿐 아니라 대학 교육에까지 스며들고 있으며, SNS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해 다양한 교수학습 모형과 방법에 대한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대학 수업에서의 SNS 활용이 학습자의 태도, 지속적 이용 의도 및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다. 기존 연구를 토대로 매체활용 효능감, 교육적 기대가치, 주관적 규범, 습관, 즐거움을 학습자의 SNS 활용 요인으로 도출하였다. 수도권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Smart PLS를 이용한 구조방정식 분석 결과에 따르면 교육적 기대가치, 주관적 규범, 즐거움은 SNS 활용에 대한 학습자의 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매체활용 효능감과 습관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습자의 태도는 향후 지속적인 이용 의도와 학습 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 수업에서의 SNS의 활용은 학습자의 긍정적 태도를 야기하고 나아가 성적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대학 교육 환경에서 SNS 활용에 대한 지침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제어 :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대학 수업, 태도, 지속적 이용의도, 성과

**Abstract** SNS has been emerged as an effective educational tool in college and many studies on various teaching models and methodologies have been made in order to utilize SNS in education.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mpirically investigate the effect of affecting factors of SNS on learner's attitude, intention to re-use and performance in converging college educational environment. Self-efficacy on media usage, educational expectancy, subjective norm, habit, and enjoyment were identified as affecting factors based on prior researches. An empirical analysis was attempted by survey targeting college students. The results of structural equation model using Smart PLS shows that educational expectancy, subjective norm, and enjoyment are significantly related to the learner's attitude on use of SNS in college education, but Self-efficacy on media usage and habit are not. Learner's attitude on SNS in college education was found to be significantly related to the intention to continuous use and performance. This study implicates that using SNS in university class makes learner's attitude positively and finally lead to good performance. The analysis results can provide a guideline of effective strategy for SNS utilization in college education.

**Key Words** : Social Network Service(SNS), University class, Attitude, Intention to re-use, Performance

\* 본 연구는 2017년도 서울여자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의 지원을 받았음.

Received 10 March 2017, Revised 17 April 2017

Accepted 20 May 2017, Published 28 May 2017

Corresponding Author: Byounggho Jun

(Seoul Women's University)

Email: bojun00@swu.ac.kr

©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 1. 서론

‘2016년 인터넷이용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만6세 이상의 인터넷 이용자의 65.2%가 최근 1년 이내 SNS를 이용한 경험이 있으며, 이들은 주 평균 19.6회(일 평균 약 2.8회) 개인적인 용도로 SNS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SNS 이용 목적을 살펴보면 친구 및 교제(84.0%) 뿐 아니라 지식 및 정보 공유(41.1%)를 위해서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 이러한 SNS를 둘러싼 인터넷 이용 환경의 변화는 교육 분야에도 적용이 되고 있다. SNS 환경에서 다양한 교수 방법에 대한 연구들이 시도되고 있으며 스마트기기의 확산으로 인해 스마트러닝으로 확장되어 교육의 패러다임에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2]. 실제로 최근 대학에서는 학습자 간 또는 학습자-교수자 간의 관계 형성, 정보공유, 협업, 피드백 등을 위한 도구로 SNS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3, 4].

SNS가 처음 등장했을 때에는 단지 같은 구성원들에게 사회적 인맥을 형성해 주는 하나의 도구로만 인식이 되었는데[5], 현재는 교육적 상황에서 SNS를 활용했을 때 직접적으로 학습 효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다[6]. SNS의 교육적 활용에 대한 기존 연구들에 따르면 SNS의 특징과 기능이 급변하는 시대에 새로운 교육 방법으로서 긍정적 교육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7]. 즉 SNS는 학생들의 참여도와 상호작용을 증가시키며, 더 나아가 학습 만족도와 학업 성취도를 증진시켜 준다는 것이다. 그러나 SNS는 공공 교육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부정적인 의견도 있으며[8], 실제로 학생들은 수업에서 SNS의 부정적인 사용이 훨씬 더 높은 상황이다[2].

이에 본 연구에서는 효과적이고 발전적인 SNS의 교육적 활용을 위해 대학 수업에서 SNS 활용에 대한 학습자의 태도와 지속적 이용의도, 그리고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 2. 이론적 배경

### 2.1 SNS의 교육적 활용

SNS와 관련한 많은 기존 연구들은 주로 보안, 기술, 정체성, 네트워크 구조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최근

들어 SNS의 교육적 활용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9]. SNS를 둘러싼 변화의 중심은 ‘소통 방식의 변화’이다. 대학 교육에서도 변하고 있는 소통 방식을 반영하지 않고서는 효과적인 학습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4].

SNS는 교육적 목적으로 개발된 것은 아니지만 개인적 차원의 지식 구성뿐만 아니라 공동체적 지식 커뮤니티를 구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인적 학습공간이자 사용자 간의 사회적 협업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적 도구로 그 가능성을 주목받고 있다[10]. SNS의 교육적 활용은 전통적 교육 이론에서도 지지 받을 수 있다. 사회구성주의의 중요한 한 가지 원리가 ‘학습은 그 특성상 대화적(conversational)이다’라는 것을 감안할 때 SNS는 교수와 학생, 학생과 학생간의 대화를 촉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교육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또한 ‘교육은 참여적 사회 환경에서 시작된다’는 상황 학습 이론 역시 SNS의 교육적 활용을 지원해 준다[11]. 수업에 SNS를 활용하는 것은 SNS에 익숙한 젊은이들이 참여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적합한 방법이다[4].

대학 수업에서의 SNS 활용에 대한 연구들은 초기에는 교육적 도구로서의 SNS의 가능성과 인식을 확인하는 것에 그쳤으나 점차 다양한 변인들과 교육적 효과의 관계를 규명하는 연구로 이어지고 있다[12].

정미현, 김영록, 김재현(2014)의 연구에서는 SNS의 교육적 활용에 대한 대학생들의 인식을 분석하였으며[2], 이시화(2013)의 연구에서는 대학 수업에서의 SNS 활용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논하였다[3]. 한동욱과 강민채(2014)의 연구에서는 교수자의 신뢰를 강조하며 SNS의 교육적 활용에 대한 잠재적 가능성을 논하였다[13]. 한편 피수영(2014)의 연구는 컴퓨터 교육 분야에서도 SNS의 활용이 학업성취도를 증가시켜 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14].

SNS의 교육적 활용의 효과는 주로 학습자의 태도나 만족도 관점에서 분석이 이뤄지고 있으며, 그 변인은 크게 SNS 자체의 속성과 사용자의 속성에서 접근하고 있는데 많은 연구들이 기술수용모델(TAM: Technology Acceptance Model)을 활용하고 있다[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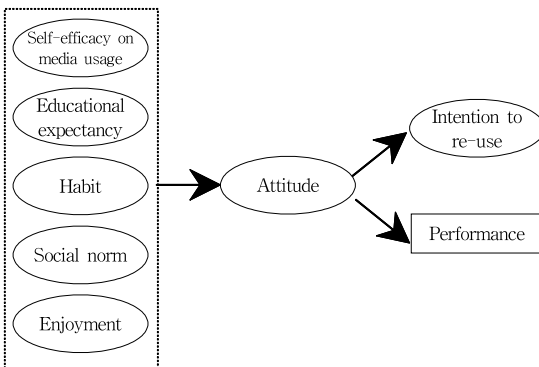
Arteage, Cortigo, Javed(2014)의 연구에서는 TAM의 유용성 및 용이성, 그리고 사회적 영향, 촉진 조건, 공동체 정체성의 관점에서 대학 수업에서의 페이스북 활용을 분석하였고[9], 정한호(2015)는 대학 수업에서 주관적 규

법, 즐거움, 습관 등의 사용자 변인이 SNS 활용에 대한 태도와 사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15]. 박혜진과 유병민(2014)은 대학 수업에서의 SNS 활용 효과를 학습만족도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10]. 최근에는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협력학습에서의 SNS 활용과 그 효과의 분석이 이뤄지고 있다. 전은화(2016)와 주영주(2016)는 SNS를 활용한 협력학습에서 학습자의 특성이 학습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5, 16].

## 2.2 연구 모형 및 가설

본 연구의 목적은 [Fig. 1]과 같이 SNS 활용 수업에서의 학습자의 태도와 지속적 이용의도, 그리고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새로운 기술 및 서비스 이용에 관련된 많은 연구들은 TAM을 활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TAM의 유용성과 용이성 요인에 개인 및 사회적 요인인 습관과 즐거움, 그리고 주관적 규범을 추가하였다. 테크놀로지는 수용 초기에는 인지적 과정을 거치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 반복적인 습관에 따라 이용된다[13]. 그리고 SNS는 특정 목적 이외에 즐거움을 위해 이용되는 경우가 많으며[14], 주변 환경의 영향에 의해 좌우되는 경향이 크다[15].



[Fig. 1] Research Model

TAM에 따르면 새로운 기술에 대해 사용자가 인지하는 유용성과 용이성이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16]. 용이성은 새로운 정보기술이나 서비스를 도입하게 되는 경우, 사용자가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손쉽게 적용하고 습득할 수 있다고 지각하는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매체활용 효능감과 동일한 맥락으로 설명될 수 있다[17]. 매체활용

효능감은 Bandura(1997)의 자기효능감을 컴퓨터와 같은 매체에 적용한 개념인데[18], 컴퓨터 관련 교육에서도 이러한 매체활용 효능감이 높을수록 사용자의 자신감을 높여 긍정적인 태도와 성과로 이어진다고 나타나고 있다[19]. 이러한 관점에서 SNS에 대한 학습자의 주관적인 자기평가와 자신감으로 정의되는 매체활용 효능감은 SNS활용에 대한 사용자의 태도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한편 유용성은 새로운 기술이나 서비스를 수용하는 것이 그것을 수용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보다 더 낫다고 지각하는 정도를 말하는 것으로, SNS에 대해 학습자가 기대하는 교육적 가치의 맥락에서 설명될 수 있다[20]. 정보기술 및 컴퓨터 활용 교육 분야에서 이러한 성과에 대한 기대 가치는 사용자 태도 및 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21]. 이러한 관점에서 SNS의 활용이 학습에 유용하고 학습 성과를 신장시켜줄 것이라는 기대감은 SNS 활용에 대한 학습자의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가설 1: 매체활용효능감은 대학 수업에서의 SNS 활용에 대한 학습자의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교육적 기대 가치는 대학 수업에서의 SNS 활용에 대한 학습자의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새로운 기술 및 서비스의 이용은 개인적 신념에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주관적 규범에도 영향을 받는다[22]. 주관적 규범이란 특정 집단의 사람들이 내가 특정 행위를 해야 하거나 또는 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한 개인의 지각 정도를 말하는 것으로[23], 즉 특정 행위 여부를 결정할 때 특정집단이 보이는 반응에 따라 그 행동을 수행할지 말지에 대해 고민하게 된다는 것이다. 주관적 규범은 개인의 SNS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주변 친구들이나 동료들의 관점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인 인식으로 일종의 사회적 영향으로 볼 수 있다[15]. 즉 자신이 준거할 만한 중요한 사람이 특정 매체를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의 믿음을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구조에 반영하는 것이다[24]. 이러한

주관적 규점은 온라인 및 모바일 구매 뿐 아니라 SNS 이용에 대한 이용자의 태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25, 26, 27]. 이에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3: 주관적 규범은 대학 수업에서의 SNS 활용에 대한 학습자의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대부분의 사용자들은 테크놀로지가 도입되는 수용 초기에는 테크놀로지 사용을 결정하는 인지적인 과정을 거치게 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테크놀로지에 대한 반복적인 행동은 증가하지만 성찰적인 인지과정은 점차 감소하게 된다[13]. 즉, 사용자가 과거에 비슷한 경험이나 학습으로 인해 새로운 테크놀로지를 사용할 때 자동적으로 수행하는 경향인 습관이 테크놀로지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습관은 상황적 단서와 특정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반복적 행위를 통해 무의식적으로 발생하는 행위를 말하는데[28], 테크놀로지 이용에서의 습관은 이용자의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29]. 기술 및 서비스 이용에 대한 전통적 이론들은 합리적인 판단에 근거하여 사용자들이 서비스를 사용한다고 가정하지만, 최근 연구들에서는 서비스의 반복적인 사용으로 인해 사용자들이 의도적으로 지속 사용을 결정하기보다 습관적으로 사용하게 됨을 밝히고 있다[30, 31]. 특히 SNS 서비스는 하루에도 자주 접속하는 서비스로 사용자들이 습관적으로 접속하게 된다[32]. 이러한 SNS의 특성을 고려할 때 습관과 태도 간에 더욱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27]. 이러한 논거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4: 습관은 대학 수업에서의 SNS 활용에 대한 학습자의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일반적으로 SNS와 같은 새로운 테크놀로지의 활용을 통해 즐거움과 재미를 경험한 사용자는 그와 같은 경험이 적거나 없는 사용자들보다 SNS 활용에 대한 의도가 강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14]. SNS에 대한 도구적인 가치로부터 발생하는 내적인 즐거움과 흥미는 사용자의 태도와 실제 사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즐

거움을 주 제공 목적으로 하는 모바일 게임 뿐 아니라 [33], 이러닝과 SNS를 활용한 교육 서비스에서도 즐거움은 사용자의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27, 34, 35]. 이에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5: 즐거움은 대학 수업에서의 SNS 활용에 대한 학습자의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새로운 기술이나 서비스의 지속적 이용 의도는 태도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36]. 서비스 이용 후 이용자의 만족스러운 태도는 반복 이용 의사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37]. 이러닝 및 SNS를 활용한 교육에서도 학습자의 만족스러운 태도는 지속적인 이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27, 34, 38].

가설 6: 대학 수업에서의 SNS 활용에 대한 학습자의 태도는 지속적 이용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소비자행동론에서의 고객을 정보시스템 입장에서 보면 최종사용자이다. 소비자행동론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정보시스템 최종사용자의 만족스러운 태도는 높은 성과를 나타내게 된다[39]. 즉, 사용자의 만족과 의사결정의 성과 및 효율성에는 강력한 관계가 존재하며 만족은 개인의 효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가 되는 것이다[40]. 사용자의 태도와 성과의 긍정적인 관계는 컴퓨터 교육, 이러닝, SNS 활용 교육에서도 나타나고 있다[17, 27, 34, 38, 41]. 성과는 다른 과목과 비교하여 좋은 학점을 받은 정도로 측정하였다[42]. 이러한 논거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7: 대학 수업에서의 SNS 활용에 대한 학습자의 태도는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 3. 실증 분석

#### 3.1 측정 도구 및 자료의 수집

본 연구의 설문에 사용된 개별 문항들은 내용 타당성의 확보를 위해 기존 연구들에서 사용되었고 그 타당성

이 실증적으로 검증된 항목들로부터 선택하여 본 연구의 환경에 맞도록 적절하게 수정을 하여 사용하였다. 각 변수에 대한 측정 척도는 <Table 1>과 같다. 각 측정 항목은 “매우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에 이르는 값의 범위를 갖는 5점 Likert 척도를 이용하여 측정되었다.

본 연구는 2016년 1학기에 SNS를 활용하는 수업 수강 경험이 있는 수도권 2개 대학의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온라인 및 직접 면접을 통해 설문이 회수되었으며, 이 중에서 무응답 및 불성실한 설문을 제외하고 213부를 최종 분석에 이용하였다. 응답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전체 213명중 남자 49명, 여자 164명으로 여학

생의 비중이 다소 많으며, 1학년 21명, 2학년 78명, 3학년 44명, 4학년 70명의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전공별 분포는 ‘인문사회계열(55%)’, ‘공학 및 자연계열(37%)’, ‘예체능계열(8%)’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수업에서 활용된 SNS는 페이스북, 블로그, 밴드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그 목적으로는 ‘자료 공유(77%)’, ‘정보(공지사항) 공유(76%)’, ‘조별 과제(58%)’, ‘토론(26%)’, ‘재미(0.08%)’의 순으로 나타났다.

### 3.2 가설 검증 결과

분석을 위해 SmartPLS를 사용하였다. 확인요인분석

<Table 1> Construct of Research Model

Construct	Item	References	Factor Loading	CR	AVE	Cronbach's α
Self-efficacy on media usage	Searching for class materials using SNS is easy	[16-21]	0.672	0.888	0.729	0.814
	Information searching for class using SNS is easy		0.929			
	Using SNS is easy		0.934			
Educational expectancy	Using SNS in class would lead to good performance		0.919	0.945	0.852	0.913
	Using SNS in class would make class more effective		0.935			
	Using SNS in class would help my study		0.915			
Habit	I use SNS habitually	[13, 27-32]	0.824	0.921	0.745	0.745
	I use SNS unconsciously		0.907			
	I use SNS without being aware		0.897			
	Using SNS is part of my daily life		0.820			
Social norm	My colleague think using SNS is necessary for college life	[22-27]	0.720	0.854	0.596	0.774
	My colleague think using SNS is necessary for class		0.861			
	My colleague recommend that using SNS is helpful for study		0.800			
	Social environment with the development of IT would affect on using SNS in college class		0.695			
Enjoyment	I feel pleasure using SNS in class for study	[14, 27, 34-35]	0.939	0.969	0.912	0.951
	It's fun to use SNS in class for study		0.975			
	I enjoyed class using SNS for study		0.951			
Attitude	I like class using SNS	[27, 34, 36-38, 41]	0.880	0.930	0.816	0.887
	Using SNS in class is a good idea		0.917			
	Using SNS in class is desirable		0.913			
Intention to re-use	I intend to take class which communicate with professor using SNS in the next semester	[39-40]	0.923	0.947	0.818	0.926
	I intend to use SNS for study in the next semester		0.869			
	I intend to take class using SNS in the next semester		0.925			
	I intend to recommend my colleges to take class using SNS		0.899			

<Table 2> Correlation Matrix and Discriminant Validity

	1	2	3	4	5	6	7
Self-efficacy on media usage	<b>(0.729)</b>						
Educational expectancy	0.429	<b>(0.852)</b>					

과 상관관계분석을 통해 측정모형을 분석하고 SNS 이용 태도와 지속적 이용 의도 및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인과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일반적으로 PLS는 모형 전체의 적합성을 측정하기 보다는 원인-예측 분석을 할 경우나 이론 개발의 초기 단계에서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며, 그리고 PLS는 요인을 구성하는 변수에 제약을 받지 않는다[43]. 본 연구 역시 대학 수업에서의 SNS 이용 태도와 지속적 이용 의도 및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효과를 분석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PLS를 분석도구로 채택하였다.

<Table 1>에서 보는 것처럼 측정항목들의 요인 적재치는 Hair et al.[44]이 제시한 임계치 0.6을 모두 상회하였고 구성개념의 복합신뢰도 역시 Nunnally[45]가 제안한 임계치 0.7을 모두 상회하고 있으며, 평균 분산 추출인 AVE 또한 Fornell and Lacker[46]와 Hair et al.[44]이 제안하고 있는 임계치인 0.5를 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안하고 있는 측정모형은 적절한 수렴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한편, 각 구성개념의 평균 및 표준편차 그리고 각 구성개념간 상관계수와 AVE는 <Table 2>와 같다. 모든 구성개념의 AVE가 다른 구성개념간의 상관계수의 제곱값(괄호안의 값)보다 높은 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제안하고 있는 측정모형은 적절한 판별타당성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Table 3> Results of Hypothesis Testing

H	Path	Coeff.	t	Result
H1	Self efficacy on media usage -> Attitude	0.002	0.028	Reject
H2	Educational expectancy -> Attitude	0.244	2.319***	Accept
H3	Habit -> Attitude	0.055	0.659	Reject
H4	Social norm -> Attitude	0.211	2.386***	Accept
H5	Enjoyment -> Attitude	0.430	4.076***	Accept
H6	Attitude -> Intention to re-use	0.774	16.803***	Accept
H7	Attitude -> Performance	0.462	5.240***	Accept

\*\*\* p<0.001

가설검증은 PLS에서 제공하는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방식을 이용하여 해당 t값을 구하여 수행되었다. 가설검증 결과에 따른 각 경로계수와 t값은 <Table 3>에서 보는바와 같다. 교육적 기대가치, 주관적

규범, 즐거움은 유의수준 0.001에서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매체활용효능감과 습관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SNS 활용에 대한 태도는 지속적 이용의도와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각 구성개념에 대한 분산설명력은 전반적으로 모형이 설명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태도 R<sup>2</sup>=56%, 지속적 이용의도 R<sup>2</sup>=60%, 성적 R<sup>2</sup>=21%).

## 4. 결론

### 4.1 결론 및 시사점

SNS의 확산은 교육 분야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47], 본 연구에서는 SNS의 이용률이 높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SNS의 교육적 활용을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 수업에서의 SNS 활용에 대한 학습자의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그러한 태도가 지속적 이용의도 및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것이었다. SNS를 활용하는 수업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먼저 용이성으로 해석될 수 있는 매체활용효능감과 습관은 SNS의 교육적 이용에 대한 학습자의 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매체와 달리 SNS 이용이 복잡하거나 어렵지 않기 때문에 이용의 용이함 정도가 학습자의 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또한 연구의 대상이 대학 수업에서의 SNS 활용이라는 것을 감안했을 때 습관이 사용자의 태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즉 SNS의 이용 정도가 많은 대학생들에게 습관은 교육적 활용에 대한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이다. 습관은 SNS 활용에 있어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오히려 중독과 같은 부정적인 효과와 관련이 있다[48]. 따라서 효과적인 SNS 활용을 위해 교수자는 오히려 습관적인 SNS 사용이 수업 만족도와 성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유인하는 지침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교육적 기대가치, 주관적 규범, 즐거움은 SNS의 수업 이용에 있어서의 학습자의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SNS가 학습에 있어 유용한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점차적으로 대학의 수업에서 교수자들이 기존의 LMS 뿐 아니라 SNS를 이용하는 빈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그 효과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다. SNS는 LMS와 달리 신속하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으며 덜 구조화된 비공식적 채널로 활용되기 때문에 교육적 목적으로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이다. 즉 교수자와 학생들이 큰 거부감 없이 SNS를 면대면 이외의 방법으로 상호작용하며 수업 목적을 위한 공식적 채널 뿐 아니라 비공식적 채널로도 쉽게 이용하는 것이다. 즐거움 요인이 학습자의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 이를 뒷받침 해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교수자들은 SNS를 LMS의 보완적 방법으로 연계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학교 당국의 입장에서는 다양한 소셜 매체의 교육적 활용에 대해 소개와 더불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수업에서의 SNS 활용에 대한 학습자의 긍정적인 태도는 향후 지속적 이용 뿐 아니라 성과에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SNS를 활용한 수업이 그렇지 않은 수업에서보다 더 좋은 성적이 나왔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학교 당국은 수업에서의 SNS 활용을 다방면으로 지원을 통해 지속적 이용을 장려할 필요가 있다. 교수학습센터와 같은 기구에서 수업 활용을 위한 다양한 소셜 매체 활용을 격려하고 이를 위한 다양한 특강 및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SNS가 양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융복합의 대학 교육 환경에서 SNS 활용 수업에 대한 학습자의 태도와 지속적 이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연구 분석 결과에 따른 제언들을 잘 활용한다면 대학 수업에서 효과적으로 SNS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무엇보다 다른 과목과 비교한 학점의 정도라는 구체적인 성과 변수를 추가하여 SNS의 교육적 활용을 분석하였다는 데 의미가 있다. 또한 본 연구는 전통적인 기술적 관점에 국한하지 않고 교육은 대화적이고 참여적이라는 교육학적 관점을 추가하여 분석함으로써 SNS의 교육적 활용에 대한 연구의 영역을 확장하는데 기여하였다.

#### 4.2 연구 한계점과 향후 연구 방향

마지막으로 본 연구가 지니는 한계점과 향후 연구 방향은 다음과 같다. 수도권 2개의 대학의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수행했기 때문에 향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대학교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연구의 일반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성별과 학년, 그리고 전공을 모두 고려한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수업의 유형과 SNS의 유형을 고려한 연구가 시행된다면 효과적이고 구체적인 SNS의 교육적 활용을 위한 지침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 ACKNOWLEDGMENTS

This work was supported by a research grant from Seoul Women's University(2017).

### REFERENCES

- [1] KISA, "2016 Survey on the Internet Usage", KISA, 2017.
- [2] M. H. Chung, Y. R. Gim, and J. Y. Kim, "An Analysis of the Awareness of Undergraduate Students Toward Educational Methods Utilizing SNS",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Internet Informtion*, Vol. 15, No. 5, pp.33-41, 2014.
- [3] S. H. Lee, "A Study of Student's Satisfaction on SNS applied to Lecture in University", *The e-Business Studies*, Vol. 14, No. 5, pp.153-169, 2013.
- [4] B. H. Jun, "Affecting factors of Leaner's Attitude and Intention to use of SNS in College Education", *Journal of the Korea Society of Digital Industry & Information Management*, Vol. 12, No. 2, pp. 51-59, 2016.
- [5] E. H. Chon, "The Effects of Leaner Characteristics on Collaboration Satisfaction in Collaboration learning Utilizing Social Network Sites",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 16, No. 2, pp.571-596, 2016.
- [6] N. B. Ellison, C. Steinfield, and C. Lampe, "The

- benefits of Facebook “friends:” Social capital and college students’ use of online social network sites”, *Journal of Computer Mediated Communication*, Vol. 12, No. 4, pp. 1143–1168, 2007.
- [7] K. Peppler, and M. Solomou, “Building creativity: Collaborative learning and creativity in social media environments”, *On the Horizon*, Vol. 19, No. 1, pp.13–23, 2011.
- [8] N. Friesen, and S. Lowe, “The questionable promise of social media for education: Connective learning and the commercial imperative”, *Journal of Computer Assisted Learning*, Vol. 28, No. 3, pp.183–194, 2011.
- [9] R. Arteaga Sánchez, V. Cortijo, and U. Javed, “Student’s perceptions of Facebook for academic purpose”, *Computers & Education*, Vol. 70, pp.138–149, 2014.
- [10] H. J. Park and B. M. Yu, “An Analysis of the Structural Relationships among Learning Presence, Learning Flow, Learning Satisfaction and Learning Persistence with the Use of SNS in University Classes”, *The journal of Educational Information and Media*, Vol. 20, No. 4, pp.649–674, 2014.
- [11] A. Paul Tess, “The role of social media in higher education classes(real and virtual) – A literature review”, *Computers in Human Behavior*, Vol. 29, pp.60–68, 2013.
- [12] J. M. Lee, H. K. Park, and Y. J. Jung, “Domestic Research Trends of Social Learning in Higher Education”,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4, No. 4, pp.111–128, 2016.
- [13] D. W. Han, M. C. Kang, “An exploratory study of applying SNS to lecture and professor trust”,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2, No. 10, pp.531–539, 2014.
- [14] S. Y. Pi, “Utilization Plan of SNS for Computer Utilization Ability Improvement of University Student”,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2, No. 6, pp.587–595, 2014.
- [15] H. H. Jeong, “A Study on College Students’ intention to utilize Social Network Service: Focusing on the Use of College Courses”, *Journal of Educational Technology*, Vol. 31, No. 1, pp.39–72, 2015.
- [16] Y. J. Joo and Y. J. Jung, “A study of satisfaction and intention to use social media for collaborative learning in University”,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Vol. 54, No. 1, pp.127–150, 2016.
- [17] M. Limayem, S. G. Hirt and C. M. K. Cheung, “How habit limits the predictive power of intention: The case of information systems continuance”, *MIS Quarterly*, Vol. 31, No. 4, pp.705–737, 2007.
- [18] Y. F. Chen, “See you on facebook: Exploring influences on facebook continuous usage”, *Behaviour & Information Technology*, Vol. 33, No. 11, pp.1208–1218, 2014.
- [19] O. Kwon, and Y. Wen,, “An empirical study of the factors affecting social network service use”, *Computers in Human Behavior*, Vol. 26, No. 2, pp.254–263, 2010.
- [20] F. Davis, “Perceived usefulness, perceived ease of use, and user acceptance of information technology,” *MIS Quarterly*, vol. 13, no. 3, pp.319–340, 1989.
- [21] B. H. Jun, “A Study on the Factors affecting the Satisfaction and Performance of Information Education in College”,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Information Education*, Vol. 14, No. 4, pp. 477–489, 2010.
- [22] A. Bandura, *Self-Efficacy. The Exercise of Control*, New York: W.H. Freeman and Company, 1997.
- [23] R. Santhanam, S. Sasidharan and J. Webster, “Using self-regulatory learning to enhance e-learning-based information technology training”, *Information Systems Research*, Vol. 19, pp.26–47, 2008.
- [24] J. H. Wu, Tennyson, and Hisa, “A study of student satisfaction in a blended e-learning system environment”, *Computers & Education*, Vol. 55, pp.155–164, 2010.
- [25] H. P. Shih, “Assessing the effects of self-efficacy and competence on individual satisfaction with computer use: An IT student perspective,” *Computers in Human Behavior*, Vol. 22, pp.1012–1026, 2006.



- [26] I. Ajzen,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Vol. 50., No. 2, pp.179-211, 1991.
- [27] W. S. Jung and S. J. Yoon, "Predicting Purchase Intent on Social Commerce: Use of TPB and TRI", *Journal of Korea Service Management Society*, Vol. 14, No. 2, pp.1-24, 2013.
- [28] Venkatesh, Viswanath and Fred D. Davis, "A Theoretical Extension of the Technology Acceptance Model: Four Longitudinal Field Studies", *Management Science*, Vol. 2, pp.186-204, 2000.
- [29] S. R. Kang, S. J. Han and Y. J. Kin, "Key Determinants of Online Wine Purchasing Intention", *Journal of the Korea Society of Computer and Information*, Vol. 18, No. 12, pp.123-138, 2013.
- [30] S. I. Hong, Li Bin, and B. S. Kim, "Consumer Purchase Decision in a Mobile Shopping Mall: An Integrative View of Trust and Theory of Planned Behavior", *Information Systems Review*, Vol. 18, No. 2, pp.151-171, 2016.
- [31] H. C. Triandis, "Attitude and Attitude Change", New York, NY, USA: John Wiley & Sons, 1971.
- [32] M. Limayem and S. G. Hirt, "Force of habit and information systems usage: theory and initial validation", *Journal of the Association for Information Systems*, Vol. 4, pp.65-97, 2003.
- [33] B. S. Kim, "The diffusion of mobile data services and applications: Exploring the role of habit and its antecedents", *Telecommunications Policy*, Vol. 26, No. 1, pp.69-81, 2012.
- [34] M. Limayem and C. M. K. Cheung, "Understanding information systems continuance: The case of Internet-based learning technologies", *Information & Management*, Vol. 45, No. 4, pp.227-232, 2008.
- [35] B. S. Kim and D. K. Kim, "A Study on Antecedents of SNS User's Addiction in the Age of Convergence: The Role of SNS Habit",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3, No. 8, pp.161-168, 2015.
- [36] I Ha, Y. Yoon and M. Choi, "Determinants of adoption of mobile games under mobile broadband wireless access environment", *Information & Management*, Vol. 44, No. 3, pp. 276-286, 2007.
- [37] H. H. Jeong, "An investigation of continuance intention of e-learning use designed for learning assistance tool in university", *Journal of Educational Technology*, Vol. 30, No. 2, pp.307-334, 2014.
- [38] K. S. Sujeet, J. Ankita and S. Himanshu, "A Multi-analytical approach to predict the Facebook usage in higher education", *Computers in Human Behavior*, Vol. 55, pp.340-353, 2016.
- [39] F. Davis, "Perceived usefulness, perceived ease of use, and user acceptance of information technology", *MIS Quarterly*, Vol. 13, No. 3, pp.319-340, 1989.
- [40] B. H. Jun and B. G. Kang, "Effects of Information Quality on Customer Satisfaction and Continuous Intention to use in Social Commerce", *Journal of The Korea Society of Computer and Information*, Vol. 18, No. 3, pp.127-139, 2013.
- [41] J. E. Bailey and S. W. Pearson, "Development of a Tool for Measurement and Analyzing Computer User Satisfaction", *Management Science*, Vol. 29, No. 5, pp.530-545, 1983.
- [42] A. W. Gatian, "Is user Satisfaction a Valid Measure of System Effectiveness?", *Information & Management*, Vol. 26, No. 3, pp.119-131, 1994.
- [43] H. S. Jeong, D. C. Son and C. S. Kim, "Learning Effect Analysis for Flipped Learning based Computer Use Instruction",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8, No. 1, pp.155-162, 2017.
- [44] S. Y. Han, "A study on the Relationships among Smart Phone Addiction, Learning-Flow, and Learning Achievement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 15. No. 2, pp.987-1003, 2015.
- [45] J. M. Howell and C. A. Higgins, "Champion of Technological Innovation",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Vol. 35, No. 2, pp. 317-341, 1990.
- [46] J. A. Hair, R. E. Anderson, R. L. Tatham and W. C. Black, *Multivariate data analysis(5th edition)*, New Jersey: Prentice Hall, 1998.
- [47] J. C. Nunnally, *Psychometric Theory*, New York, Mc-Graw-Hill, 1994.

- [48] C. Fornell, and D. F. Lacker, "Structural Equation Models with Unobservable Variables and Measurement Errors",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Vol. 18, No. 2, pp. 39-50, 1981.
- [49] J. Y. Chang, "Convergence of Education and 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 : A Study on the Communication Characteristics of SNS Affecting Relationship Development between Professor and Student",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6, No. 6, pp.213-219, 2015.
- [50] B. S Kim and, I. D. Hwang, "Antecedents of Behavioral Problem in Social Network Services: Moderating Effect of Age", The Academy of Customer Satisfaction Management Journal", Vol. 18, No. 1, pp.57-75, 2016.

전 병 호(Jun, Byoung Ho)



- 2008년 8월 : 고려대학교  
디지털경영학과(경영학박사)
- 2008년 9월 ~ 현재 : 서울여자대학교  
기초교육원 부교수
- 관심분야 : SNS 활용, 표준 및 적합  
성평가, 표준경영, IT활용 교육
- E-Mail : bojun00@swu.ac.kr